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G D P	4,347억 달러 (2010년)
인구	26.25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16,559 달러 (2010년)
정치체제	왕정 (정교일치)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9.1%에 달하는 2,645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3%에 해당하는 8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임.
-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의 발상지로서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슬람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2005년 8월에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다변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적 유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II.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 회복

○ 세계 최대의 원유 부존·수출국*으로서, 석유산업이 GDP의 5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량의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원유 매장량과 수출량은 각각 2,645억 배럴, 3.6억 톤으로 전세계의 19.1%, 18.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는 2003~08년 기간에 고유가에 힘입어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2월에 배럴당 평균 4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고 산유량도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0.6%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 연도별 원유생산량 (백만 b/d): 9.2(2006) → 8.8(2007) → 9.2(2008) → 8.4(2009) → 8.6(2010) → 9.9(2011)

*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9년에 배럴당 61.39달러로 2008년의 94.34달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12월 20일에 89.34달러 까지 상승하는 등 평균 78.06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산유량도 증가하면서 경제가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유가 상승, 서비스 부문 성장,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힘입어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2.0	4.2	0.6	3.7	7.5
재정수지 / GDP	15.8	34.4	-4.7	7.7	12.8
소비자물가상승률	4.1	9.9	5.1	5.4	6.0

자료: IMF.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연 5~6% 수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안정,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을 통한 임금 인하 등에 힘입어 2~4%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8년에는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임대료 급등,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9.9%로 급등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의 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로 다시 하락하였고,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큰 폭의 오름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나, 식료품과 비석유제품의 가격 상승과 주택 임대료의 상승,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6%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 확대 전망

-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2008년에는 원유 증산과 국제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GDP 대비 34.4%까지 대폭 확대되기도 하였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4.7%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재정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GDP 대비 7.7% 수준의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는 공무원 임금의 인상, 교육·보건부문의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2%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산업이 GDP의 55%,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구조가 편중되어 있어,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9.1%인 2,645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3%인 8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와 2,625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정치·경제 중심국임.
 - 원유는 대부분 동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유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가와르(Ghwar, 700억 배럴) 유전과 세계 최대 해상유전인 사파니아(Safaniyah, 190억 배럴) 유전을 비롯하여 압카이크 (Abqaiq) 유전, 베리(Berri) 유전 등이 있음.
 -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비석유·민간부문 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의 탈석유화 도모

- 정부는 경제 구조 다원화를 위해 5대 경제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 (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산업* 등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 기간 동안에만 메카(Mecca)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매년 3백만 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GDP의 1.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향후 성지순례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순례객을 위한 호텔, 교통(철도, 공항, 도로 등)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진행 중임.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석유산업 위주의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KAEC)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중북부 지방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 (Prince Abdul Aziz Ibn Musaed Economic City: PABMEC) 개발 프로젝트 (총 80억 달러),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중심의 지잔경제도시 (Jizan Economic City: JEC) 개발 프로젝트 (총 300억 달러), IT·지식기반 도시인 메디나 경제도시 (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MKEC) 건설 프로젝트 (총 70억 달러) 등이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2003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정유·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2004년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19(2004) → 121(2005) → 183(2006) → 228(2007) → 382(2008) → 355(2009)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성과로는 ① 2002년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② 2002년 사우디 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③ 2006년 사우디 국영광업공사(MAADEN) 지분 매각, ④ 2010년 사우디아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민영화를 들 수 있음.

- 또한 현재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와 담수청(SWCC) 등의 민영화 작업도 추진 중에 있음.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 흑자는 고유가에 힘입어 2003년 594억 달러에서 2008년 2,12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2009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의 절반 수준인 1,052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1,49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9년에 GDP 대비 5.6% 수준으로 2008년 27.8% 보다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0년에는 8.9%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1,052억 달러(2009) → 1,495억 달러(2010) → 2,296억 달러(2011)
- 서비스수지: -652억 달러(2009) → -648억 달러(2010) → -730억 달러(2011)
- 소득수지: 86억 달러(2009) → 122억 달러(2010) → 124억 달러(2011)
- 경상이전수지: -277억 달러(2009) → -269억 달러(2010) → -293억 달러(2011)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말에 4,45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 규모는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0년 말 기준 GDP 대비 18%대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총수출 대비 외채 상환액 비율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93,380	132,314	20,955	38,800	114,400
경 상 수 지 / G D P	24.3	27.8	5.6	8.9	20.5
상 품 수 지	150,716	212,026	105,229	149,506	229,564
수 출	233,311	313,480	192,307	237,855	334,258
수 입	82,595	101,454	87,078	88,349	104,694
외 환 보 유 액	305,709	442,664	410,109	445,137	517,800
총 외 채 잔 액	70,521	79,003	72,398	80,951	100,217
총 외 채 잔 액 / G D P	18.3	16.6	19.4	18.6	17.9
D S R	2.1	1.8	2.7	2.4	2.2

자료: IMF, EIU.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 및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 바탕을 둔 회교 율법인 샤리아 (Shariah)를 국법으로 하는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사우드 가(Al Saud family)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1932년 압둘 아지즈(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 국왕 이후 압둘 아지즈의 아들이 현재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있음.

* 2005년에 즉위한 압둘라(Abdullah bin Abdel-Aziz al-Saud) 국왕이 총리를 겸임하고 있고, 술탄(Sultan bin Abdel-Aziz al-Saud) 왕세제가 제1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내무부장관, 각 주지사 (13개 주),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주요 요직을 알 사우드 가문의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

- 의회나 정당은 없으며, 국왕이 임명한 1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음.

- 압둘라 국왕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질적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제 육성, 경제 인프라 건설, 교육체계 개편 등 점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국왕승계절차에 대한 개혁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국왕승계절차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에 국왕 및 왕세제의 유고시에 왕실위원회(Allegiance Institut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왕승계법안을 제정하였음. 이는 사우디 지배가 내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왕권 승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후계구도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 현 압둘라 국왕과 술탄 왕세제 모두 80대 후반의 고령이고, 특히 압둘라 국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술탄 왕세제는 암으로 추정되는 지병을 앓고 있어 후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제2부총리이자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중인 나예프 (Nayef bin Abdel-Aziz al-Saud) 왕자가 후계자로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리야드(Riyadh) 주지사인 살만(Salman bin Abdel-Aziz al-Saud) 왕자도 거론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중동의 선진 GCC 6개국 중에서도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종교적 편중은 매우 심각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모든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박사임.

- 9.11 테러 주범 중 사우디 국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과 사우디는 지나친 종교교육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양성하고 테러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보수적인 왕족과 종교지도자들의 반대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19명 중 15명이 사우디 국민인 것으로 판명됨.

□ 부의 왕족일가 편중에 대한 불만 증가

-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그 불만이 정부 전복을 노리는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로까지 표출될 정도는 아니며,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 총 인구의 50%가 21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 실업률은 12%수준이나, 실제로는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에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 (Saudiz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5%를 상회하는데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국의 숙련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의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외국 인력을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업의 사우디인 고용 의무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청년층의 실업 증가 추세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은 점점 높여져 왔으며, 정부는 2005년 9월의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하였음.

** 교육은 아직까지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일 정도로 종교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로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형편임.

□ 소수 시아파 차별 문제 상존

- 국민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는 시아파는 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고, 정치·외교 분야의 공식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가 사우디 왕정 전복을 노리는 알-카에다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시아파 국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특히 1979년 이란 회교혁명 후에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폭동이 발생하여 불신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사태 발생 가능성은 희박

- 반정부 시위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아파 거주지역인 동부에서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제다(Jeddah)에서 거리 시위가 발생한바 있음.
- 그러나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이슬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왕 및 왕가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 높음.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튀니지, 이집트와는 달리 국가재정상황이 양호하여 경제적 유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중동 민주화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2월과 3월에 1,300억 달러 규모(2010년 GDP의 30%)의 재정지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주택공급, 공무원 임금인상,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구성됨.

3. 국제 관계

□ 중동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국익을 추구하고 원유수출국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

□ 긴밀한 대미 관계 유지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9.11 테러에 사우디 국민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있었으나, 이후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하였고 왕정 전복을 노리는 2003년의 리야드 테러사건 이후 극단 이슬람 저항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면서, 양국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은 국민 대다수의 반미감정 부응 필요성과 왕정 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대미관계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음.

□ 이란과의 갈등 심화

- 이란과 수니-시아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에서 2005년에 강경보수파인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핵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음.
- 수니파가 국민 대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음.
- 바레인 시위사태 진압을 위해 2011년 3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 UAE가 500명의 병력을 바레인에 파견하자, 이란 정부가 이를 비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심화되었음.

□ GCC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서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36%,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하여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어서 진일보하여 GCC는 2009년 12월의 정상회의에서 연합군의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효시켰는데, UAE와 오만은 통화협정에서 제외되었음.
- UAE는 2009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향후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통화동맹에서 탈퇴하였고, 오만은 단일 통화 체제의 가입을 위한 자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음.
- 이후 2010년 3월에는 단일통화가 출범할 경우에 걸프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할 합동통화위원회(Joint Monetary Council)가 설치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총재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그러나 다양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데다,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단일통화에 대한 경계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단일통화 출범이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매우 양호

-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고 2010년 말 기준으로 정부부채를 크게 초과하는 4,45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도 충분함.

2. 국제시장평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급, OECD 2등급 유지

- Moody's는 2010년 2월에 양호한 재정상태, 경상수지 흑자 지속,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주된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1에서 Aa3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3월 재평가 시에도 Aa3를 유지함.

- S&P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용등급은 2007년 7월에 A+에서 AA-로 1단계 상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Fitch 등급은 2008년 7월에 A+에서 AA-로 상향조정된 후, 2011년 4월 재평가 시에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OECD는 2005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세계 금융위기로 큰 영향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였음.
 - 주식시장에서는 2008년 8월에 8,400 수준이던 주가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이탈로 2009년 3월에는 4,130까지 50% 이상 폭락하였음.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가지수도 오름세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6월말에는 6,5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은 2009년 2월에 335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 회복 조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2009년 11월 말 두바이월드외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CDS 프리미엄이 111bp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 6월 말 현재 90~95bp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1. 7.)	B1 (2010.12.)
OECD	2등급 (2011. 3.)	2등급 (2010. 4.)
S&P	AA- (2007. 7.)	A+ (2006. 4.)
Moody's	Aa3 (2011. 3.)	Aa3 (2010. 2.)
Fitch	AA- (2011. 4.)	AA- (2010. 1.)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0월 16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1975),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1984),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 투자협력협정(2002), 조세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7)

□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원유 총수입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에 우리나라는 총 687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29억 달러로 33.3%를, GCC 국가 전체는 459억 달러로 66.9%를 각각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2010년 교역규모는 약 314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 중심으로 약 46억 달러, 수입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26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국 중 제1위 국가

- 2010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액은 846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4,208억 달러의 20.1%를 차지하였음. 특히 201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액이 105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후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음.
- 2011년에도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발사업 수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6월말까지 95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2010년의 105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11년 6월에 향후 20년에 걸쳐 3,0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16기 건설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기대됨.
 - 사우디 정부는 연간 7~8%씩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원전 건설을 계획중으로 전력생산의 20%를 원자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4>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 품목
수 출	5,253	3,857	4,557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석유류 등
수 입	33,781	19,737	26,820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합 계	39,034	23,594	31,377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3월 말 현재 156건, 2억 402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1억 276만 달러)과 건설업(9,076만 달러)으로, 이들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95%를 차지하였음.

V. 종합 의견

- 세계 1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세를 이어왔음.
- 2009년 유가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과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1년에는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이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및 실업문제 해소를 목표로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경제 육성, 대규모 경제 인프라 건설 추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국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반미감정과 정부의 친미 정책 간의 괴리, 높은 실업률과 왕족 일가로의 극심한 부의 편중 등을 비판하는 청년계층의 확대, 소외받는 소수 시아파 국민의 민심이반 등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